CHANNEL

삼정 KPMG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2025 DECEMBER
Vol.275

Good Bye 2025! Happy New Year!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삼정KPMG 뉴스레터 + DECEMBER 2025

CONTENTS

Vol 275

건강한 성장

04 **Top News 2025**
삼정인이 뽑은 2025년 Top News!

08 **Emerging Trends**
한·미 & 미·중 무역협상에 따른
한국 기업의 관세 최적화 방안은?

10 **Market Reader**
ESG 경영 개선 통한
기업의 EBITDA 제고 방안은?

12 **Team Story**
기업 성장 단계별 토탈 솔루션,
IPO 지원센터

14 **Client+**
미래 산업 주도하는 복합소재 선도 기업,
한국카본

16 **Expert's Advice**
AI 에이전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18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경제 용어 사전

행복한 일터

20 **삼정人라이프**
2025년 삼정인의 가장 특별한 순간!

22 **인재양성소**
2025 GNPC
바르셀로나에서 개최!

24 **마음온도+**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봉사단
'행복한 동행'

26 **이동규의 두줄칼럼**
최고의 스펙

28 **心 Care**
새해 운세를 보기 전에 :
내 불안을 누가 해석하는가?

30 **Samjong News**
머니투데이 주주친화대상-
2025 IR 대상에서 'IR파트너상' 수상 外

Channel 웹페이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Channel'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COVER STORY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여러분께 어떤 해였나요? 지나간 아쉬움은 잠시 내려놓고, 다가올 새해에 대한 기대를 채워보면 좋겠습니다. 표지 속 각자의 행복을 품고 미소 짓는 사람들처럼, 여러분의 연말도 따뜻하고 즐거운 순간들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벽호(031-946-098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삼정인이 뽑은

2025 Top News!

어느덧 2025년의 달력도 한 장을 남겨뒀다.
연말을 맞이해 2025년 삼정KPMG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려 한다. 삼정인이 직접 뽑은
올해의 삼정KPMG 뉴스를 살펴보자.

#1

People First 업무 공간 혁신!
모든 사무 공간을 스마트 오피스로 전환

삼정KPMG는 인재를 존중하는 People First 문화를 바탕으로 업무 공간 혁신을 추진했다. 2024년 12월 23일 **별관 성공빌딩 리모델링**을 완료하며, 기존 **GFC 8개 층(8·9·10·11·15·27·28·29층)에 이어 쾌적하고 여유로운 근무 환경을 갖춘 스마트 오피스**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이를 통해 삼정KPMG는 모든 사무 공간을 스마트 오피스로 전환했다.

#2

프랑스로, 영국으로!
S.Manager 승진자 & GEP 우수자 해외 연수 진행

FY25 S.Manager 승진자 138명은 프랑스 파리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으며, 올해에도 가족 동반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주니어 집중 육성 프로그램인 **'GEP(Global Elite Program)' 15기 우수자 65명은 영국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오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했다.

#3

2025년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결과, 2년 연속 Big4 최다 성적 우수자 배출

2025년 한공회 종합평가시험 결과, 삼정KPMG는 **2년 연속 Big4 중 가장 많은 인원과 가장 높은 비율의 성적 우수자를 배출**했다. 이를 기념하며 법인 시상식을 열어 표창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1년 차 기본실무연수 종합평가시험에서는 법인 대상자 259명 중 **32명(12.4%)이 상위 5% 이내 성적 우수자**로 선정됐다. **2년 차 외감실무연수 종합평가시험**에는 법인 대상자 345명이 응시해, 이 중 **29명(8.4%)이 상위 5% 이내 성적 우수자**로 이름을 올렸다.

#4

다채로운 AI 플랫폼 개발 및 도입으로 업무 혁신 선도

삼정KPMG는 **생성형 AI 기반의 Microsoft 365 Copilot 도입**에 이어, **업무 보조 대화형 AI인 'Samjong AI Chat'을 11월 말 오픈**하며 AI 기반 업무 혁신을 본격화했다. 또한, 업무 목적의 상용메일 파일 첨부 예외 처리 절차를 신속하고 간결하게 운영하기 위해 자동 처리 시스템 **'DEEP(DLP Email Exception Program)'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IT SAM 대비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빠른 요청 및 승인이 가능한 상용메일 파일 첨부 발송 예외 요청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Smart Planner의 느린 속도와 복잡한 기능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Time Budget Management(TBM) 및 Timesheet 등 연관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개발한 시스템 **'PLANA'를 론칭**했다. 이를 통해 감사 시간의 효율적인 배분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5

현대자동차·BNK금융 등 신규 감사 고객 다수 확보

삼정KPMG는 현대자동차와 BNK금융 등 주요 기업들의 감사인으로 새롭게 선정되며, **다수의 신규 감사 고객을 확보**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선택을 통해 삼정KPMG의 전문성과 실력이 빛을 발휘했다.

#6

4대 회계법인 축구·야구대회 동반 우승 달성

삼정KPMG는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 행진을 이어오며, **통산 5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4대 회계법인 야구대회**에서는 **연속 3회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7

리그테이블 및 업계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광을!

삼정KPMG는 '2025년 코리아 캐피탈마켓 더벨 리그테이블 어워즈'에서 **'Best PE Buyer'**와 **'Best PE Seller'** 두 개 부문을 동시에 수상했다(25.01.22). '제3회 딜사이트 IB 대상'에서는 **'베스트 하우스 상'**과 **'베스트 딜 상'**을 수상했고(25.01.23), 한국경제 주관 '제16회 한국IB대상'에서는 **M&A 회계자문 분야 1위**를 차지했다(25.02.18). 또한 머니투데이 주관 '제22회 대한민국 IB대상'에서 **'최우수 회계자문사'**로 선정됐으며(25.02.18),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에서는 최우수 자문-회계 부문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상'**을 수상했다(25.04.23).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8
개인의 AI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AI 교육 확대

삼정KPMG는 '호모 프롬프트' 시대를 맞아 구성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생성형 AI 툴 활용법, 엑셀 업무 자동화 과정, 외부 강사를 초청한 AI 특강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8주간 진행되는 **'AI RUN & Learn 챌린지'**를 통해 구성원들의 AI 관심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활용 우수 본부 및 개인에 대한 시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 포털에는 **AI 전용 페이지를 개설**해 AI 교육 녹화 영상과 다양한 활용 사례도 제공하고 있다.

#9
Deal Advisory 대본부제로 조직 개편해 통합 시너지 창출

삼정KPMG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고객의 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Deal Advisory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10본부 체제를 6본부 대조직 체제로 재편해 **본부별 전문성을 결집하고, 이를 통해 통합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10
'머니투데이 주주친화대상-2025 IR 대상'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IR 파트너상' 수상

'삼정KPMG는 '머니투데이 주주친화대상-2025 IR 대상' 시상식에서 **회계법인으로는 유일하게 'IR 파트너상'을 수상**했다(25.11.12). 기업의 밸류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IR 활동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11
AI 에이전트 'KAigen'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AX 혁신 지원

삼정KPMG가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 플랫폼 'KAigen'은 생성형 AI, 머신러닝, 딥러닝, RPA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된 실행형 AI 플랫폼**이다. KAigen은 기업이 AI 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단순 자문 역할을 넘어 재무결산 자동화, 내부통제 강화, 자재관리 등 다양한 업무의 실질적 실행까지 가능하다. 현재 이미 여러 업무 현장에 적용되며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삼정KPMG는 **'2025 AI Summit'을 개최**해 참가자들에게 **KAigen을 공개하고 실제 시연**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선보였다.

#12
'KPMG ASPAC Chairman's Award'에서 'Operation Excellence' 부문 수상 … 2년 연속 영예!

AuditSay 개발팀은 KPMG ASPAC Chairman's Award 2024에서 Operation Excellence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해당 상은 ASPAC 멤버 펌의 우수 사례(Best Practice)를 포상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Smart Footing Tool 개발팀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이뤄진 성과**로, 삼정KPMG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People First 가치와 혁신적 변화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삼정인의 생각!

제가 생각한 올해의 뉴스는요~?

경제연구원에서 화산일주,
웨비나 유튜브가 도움이 된다고 외부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강연과 보고서 발행 부탁 드려요!

AI Tool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법인 자체적인 노력!

젊은 회계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AI Champion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AI와 회계법인 업무의 연결성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신입 회계사들의 소식이
주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대대적으로
교체된 신규 노트북
업그레이드!

제4회 삼정KPMG 챔피언십 대회!
즐거웠습니다.

기업 공시 업무 효율 높이는
'XBRL 마스터' 개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1억 5천만 원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는 삼정KPMG!

법인 내 Benefit Program
활발히 이뤄져
People First 가치 제고

아이스크림 이벤트!
덕분에 여름이 시원했어요!

사랑의 김장나눔 등
꾸준한 봉사 활동!

최근 3년간 품질관리 감리 내역에서
Big 4 중 가장 적은 지적 건수 기록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한·미 & 미·중 무역협상에 따른 한국 기업의 관세 최적화 방안은?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 한국 기업의 길을 묻다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최근의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의미 있는 흐름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한·미, 미·중 간 주요 무역협상이 연이어 타결되며 그동안 글로벌 교역을 압박해온 관세와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협상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한·미 자동차 관세 인하, 교역 안정성의 기반 마련

이번 한·미 협상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자동차 관세 인하이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조정되고, FTA(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 한국과 미국 양국이 동일하게 15%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한 합의는 교역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는 자동차와 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 제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 수출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조선업 중심의 구조적 협력

여기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포함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는 산업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다. 특히 연간 200억 달러의 현금투자 상한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안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업 협력은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신규 선박 건조 과정에서 장기금융 조달 방식이 활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투자 구조가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5:5로 배분하는 안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는 점은 장기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요소로 평가된다.

미·중 관세 완화와 공급망 회복 시그널

미국과 중국 간 합의 또한 글로벌 공급망 회복의 단초가 되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펜타닐 관련 품목의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미국의 '섹션 301조' 보복관세 면제를 내년 11월 10일까지 연장했다. 중국은 해운·물류·조선 분야 수수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와 반도체 교역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반도체 공급망 회복과 원자재 조달 여건 개선을 전망하게 하며, 주요 제조업이 직면해온 공급 제약이 완화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무역협상에 따른 관세 최적화 방안

1	비특혜 원산지 관리	• 비특혜 원산지에 따른 상호관세율 상이 **(예: 영국 10%, 한국 15%, 베트남 20%, 인도·브라질 50%)** • 공급망 변경에 비특혜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어 비특혜 원산지 상시 관리 필요
2	USMCA 활용	•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요건을 충족하는 캐나다 또는 멕시코産 물품에 대한 관세 완화 혜택**(25~35% → 상호 관세·자동차 부품 관세 0%)** • 단, 향후 원산지 검증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검증 대비 필요
3	자동차 부품 관세 활용	• '25년 10월 17일 추가 발표한 지침에 따라 특정 요건 충족 시 자동차 부품 관세 적용 가능 • 철강·알루미늄의 고율 관세가 아닌 자동차 부품 관세 적용 시 관세 절감 가능 **(50% → 25%)**

Source: KPMG 관세법인

관세 리스크 대응, 기업의 선제적 준비 필요

이번 협상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상황이 완전히 정상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기업들은 지금 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리스크 관리와 관세 최적화 전략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특혜 원산지'가 추가 관세 부과의 핵심 기준이 되는 만큼, 공급망에 변화가 생기는 즉시 원산지 재판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미국 관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의 활용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협정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과 주요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나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제조공정 관리부터 원자재 가격, 원산지 데이터 축적까지 사후 검증에 대비한 체계를 탄탄히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완성차·배터리셀·모듈 등 다양한 부품이 결합되는 품목은 미국 관세청이 추가 데이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하다.

또한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체계가 개편되면서, 미국 내 생산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가 기존 50%에서 25%로, 한국산은 최대 15%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 변화에 맞춰 통관 절차와 사후 용도증명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대응이다.

이번 협상은 미국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일부 낮추며 통상 환경 안정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가깝다. 이제 기업은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읽어야 하고, 그 속도보다 반박자 앞서 대응 체계를 다져야만 한다. 결국 누가 먼저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번 협상이 만들어낸 기회는 전혀 다른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에 관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관세법인 김태주 전무
Tel. 02-2112-7448
E-mail. taejookim@kr.kpmg.com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ESG 경영 개선 통한 기업의 EBITDA 제고 방안은?

최근 글로벌 ESG 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EU는 옴니버스 패키지 적용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은 Anti-ESG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ESG 정책 강화 의지는 있으나 KSSB 공시 확정안이 지연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경기 둔화로 기업의 재무 실적이 약화되면서 ESG 예산·조직 축소도 확산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ESG가 무역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기업의 비즈니스와 재무 성과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규제 대응 중심의 ESG에서 벗어나, ESG가 재무성과 제고로 이어지는 전략적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의 ESG 경영을 어떻게 개선하면 재무성과, 특히 EBITDA(상각전영업이익)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ESG 경영의 Viewpoint 전환 필수

기업의 ESG 경영은 기존의 Compliance 대응 중심에서 벗어나 재무 성과를 제고하는 관점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과거에는 규제 준수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ESG 경영을 해왔지만 향후에는 지속가능전략으로서 기업의 사업전략에 내재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 ESG는 비재무성과로 간주되어 왔고,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추진되어 왔지만 향후에는 ROI 관점에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핵심 영역에 집중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ESG 전략 추진이 어렵다. 또한, 그동안 ESG는 회사를 홍보하는 하나의 PR 요소로서 커뮤니케이션 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ESG 정보공시 의무화 도입에 따라 IR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ESG 추진 체계도 그동안은 전사 전략과 분리된 형태로 운영되어 왔지만 향후에는 급변하는 ESG 외부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사 전략 수준의 지속가능전략 실행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ESG 경영의 Viewpoint 전환 필수

As-was : Compliance 대응 중심	To-be : 재무 성과 (EBITDA) 제고 중심
규제 준수 및 이해관계자 요구 대응 중심	지속가능전략으로 사업전략에 내재화
비재무성과로 간주, ROI 및 경제성 고려 미흡	ROI 관점 경제성 고려, 핵심 영역에 집중
PR 요소로서 Communication	IR 요소로서 Communication
전사 전략과 분리된 ESG 실행체계	전사 전략 수준의 지속가능전략 실행체계 확립

ESG 경영 개선을 통한 EBITDA 제고 방향성

ESG 경영을 통해 기업의 재무성과를 제고하려는 접근 방법은 사실 완전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ESG 이슈가 Business 및 재무성과와 직결되어 왔던 Oil & Gas 산업에서는 이미 이러한 노력들이 다방면으로 이뤄져 왔다. 스페인의 Enel은 기후 위험 및 기회로 인한 사업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EBITDA에 미치는 영향을 Range 형태로 공시해 왔으며, 영국의 BP는 기후변화로 인해 EBITDA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왔다. 또한 영국의 Shell은 시나리오에 따른 기후 위험·기회의 재무 영향을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 전략과 투자 계획을 수립해왔다.

ESG 경영을 통한 재무 성과 제고는 최근 KSSB를 비롯한 글로벌 주요 공시 규제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SG 경영 개선을 통해 기업에 유의미한 재무성과 개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크게 3단계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ESG 경영 개선을 통한 EBITDA 제고를 위한 3단계 Approach

1단계 재무(EBITDA)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ESG 위험·기회 식별 및 분석

- ESG 위험·기회 중, **EBITDA·현금흐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이슈 식별**
  - 중대성 평가 연계
- 재무적 파급효과 기반 **우선순위화**
- 기업의 장기 전략·수익성에 기여 가능한 **전략적 기회** 구분, 사업전략과 일관성
  - 연계성 확보

2단계 핵심 ESG 위험 기회 요인별 대응 전략 수립 (경제성 최우선 고려)

- 동일 리스크라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대응 옵션 비교 선택**
- ESG 위험·기회 **대응 전략**의 **ROI·회수기간 분석 기반 의사결정**
- ESG를 단순 비용이 아니라, 비용 절감·원가 효율·수익 확대를 유발하는 경제적 레버로 재정의

3단계 재무성과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 재설계

- ESG 과제의 이행률이 아닌, **리스크 최소화·기회 확대 전략 이행**을 통해 결과적으로 **기여한 재무성과 중심 KPI 전환**
  - 원가 절감, 매출 유지·확대, 잠재 리스크/손실 회피 등
- ESG **대응 전략**의 Value Realization 추적을 통해 **실제 편익·효과를 수치로 검증**

우선 1단계로 기업의 재무(EBITDA)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ESG 위험·기회 요인들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ESG 위험·기회 요인 중, EBITDA ·현금흐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이슈를 중대성 평가와 연계하여 식별하고, 재무적 파급효과 기반 우선순위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 ESG 위험·기회 요인들의 재무적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은 2단계로 1단계에서 도출한 핵심 ESG 위험·기회 요인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대응 전략 수립 시, 경제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응 전략 옵션들을 비교·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3단계는 재무성과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 재설계하는 것이다. 기존의 ESG 성과관리 체계는 대부분 ESG 실행과제의 이행률을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ESG 전략 이행을 통해 결과적으로 재무성과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는 KPI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ESG = 기업가치'라는 표현은 그동안 ESG 업계에 풀리지 않는 명제였다. 'ESG가 기업가치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가?'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이 ESG 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아닌가?' 하는 인과관계의 혼동 속에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3단계 체계를 확립하면 ESG 경영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가 개선되는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불확실하고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ESG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경영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ESG 활동을 재무 성과와 연결하는 핵심 Tool: KPMG Value Driver Tree

한편, KPMG는 기업의 ESG 활동을 통한 재무 성과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KPMG Value Driver Tree를 개발했고, 글로벌 선도 기업들 중심으로 활용 중이다.
KPMG Value Driver Tree는 110개 주요 산업군별 EBITDA에 영향을 미치는 ESG 위험·기회 Pool을 바탕으로 기업별 핵심 ESG 위험·기회 요인을 도출한 후 해당 요인별 잠재 재무 영향을 숫자로 분석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또한, Microsoft와의 협업을 통해 AI 기술을 적용해 분석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매우 높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AI Tool을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CONTACT US

ESG비즈니스그룹
문상원 상무
Tel. 02-2112-6513
E-mail. sangwonmoon@kr.kpmg.com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 성장 단계별 토탈 솔루션, IPO 지원센터

삼정KPMG IPO 지원센터는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상장 기업이 건강한 성장을 통해 기업공개를 완수하고, 중장기 가치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상장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돕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강화된 IPO 제도 환경 속에서 기업 성장 단계별 토탈 솔루션 제공자로 활약하고 있는 IPO 지원센터를 소개한다.

변화된 IPO 환경, 제도·규제 리스크 최소화해야

올해 초 정부는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장 신뢰 회복, 기업의 질적 성장 유도,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주관사 책임 강화 등이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심사 강화 기조의 영향으로, 2025년 상반기에는 상장 기업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한 신뢰 회복과 구조적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2025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IT 섹터를 중심으로 IPO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예비 상장사들은 최근 상장 허들이 높아진 제도적 강화에 대비해, 다양한 제도와 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회계 관련 매출 기간 귀속 적정성, 특수관계자의 완전한 파악, 투자 약정(전환·상환·리픽싱 등) 조항의 재무제표 영향, 사전 분석 및 기본적인 내부통제 절차 수립 여부 등의 '필수 체크리스트'를 유념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술 특례 기업의 경우 과거 기술력 중심의 설명으로 상장이 유리한 반면, 현재는 매출 등 사업적 성과를 증명해야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에 현재의 매출에 집중해 향후 수익 창출 전망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현실적인 사업 계획과 충분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 성장 단계별 준비 사항

스타트업 단계(설립~2년 전)

- 상장 청구 시의 매출 규모 달성을 위한 매출처 확보
- (기술 상장 기업의) 기술 개발 및 고도화
- 재무 결산 내재화를 위한 인력 확보
- 결산 내재화 및 증빙 문서 보관

상장 준비 단계(2년~6개월 전)

- 상장예비심사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대표 주관 계약 체결
- 이사회, 주주총회(상장 계획 확정, 정관 변경 등)
- KIFRS 재무제표 준비
- 금융감독원에 감사인 지정 신청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지정 감사

상장 청구 단계(2~5개월 전)

-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 및 첨부 서류 제출
- 상장 적격성 심사, 심의
- 상장 예비 심사 결과 통보
- 주식 총액 인수 및 모집 매출 계약 체결
- 증권 신고서 및 예비 투자 설명서 제출 및 공모 심사

공모 단계(1개월 전)

- 기업설명회(IR) 개최, 수요예측공고
- 공모가격 최종 결정
- 청약공고, 청약
- 주금납입, 신규상장신청
- 증자등기, 증권발행실적보고
- 신규상장 승인 통보 및 공시

산업별 전문가들이 IPO 환경 변화에 민첩 대응!

삼정KPMG의 IPO 지원센터는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한 비상장사를 대신해 비상장기업의 성장, 성공적인 기업공개 및 코스닥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업 성장 단계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업계 유일 산업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산업 전문성에 기반한 특화된 지식을 제공하고 변화된 IPO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IPO 예비 기업들의 다양한 업종을 고려하여 IT, 소프트웨어, 소비재, 제조 산업 전문가를 주축으로 파이낸싱, M&A, 가치평가 등 딜 영역, 상속, 증여, 가업승계 등 TAX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또한,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회계 및 재무 준비 사항을 일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온라인 콘텐츠와 함께 연 4회 오프라인 세션, 산업별 세미나를 통해 IPO 관련 최신 제도와 정책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있다.

앞으로도 IPO 지원센터는 '공공서비스 제공자'를 표방하며, 산업별 전문 파트너들과 함께 건전한 IPO 시장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예비 상장사의 매출 성장과 투자 유치, IPO 요건 준수, 상장 이후 정착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IPO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신뢰받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IPO 지원센터 브로슈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PO 지원센터를 소개한다면?

"산업별 전문가들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IPO 모든 과정 지원!"

강인혜 전무(센터장)
ikang
@kr.kpmg.com

매출성장과 투자유지부터 상장을 위한 요구사항의 준수와 상장 이후의 정착까지, IPO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동반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 전문성을 갖춘 산업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 센터는 각 산업에 맞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장 예비 기업 위한 세미나 등 깊이 있는 인사이트 제공"

전현호 전무
hyunhojeon
@kr.kpmg.com

우리 센터는 산업별 전담팀들이 투자자와 단계별 비상장기업들에 필수적인 온라인 콘텐츠와 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에 연 단위 상장 예비 기업 세미나와 분기 단위 산업별 프라이빗 세션을 개최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산업별/기업 규모별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전합니다.

"기업 가치와 비전을 시장에 성공적 안착! 실천형 인큐베이팅 파트너"

이재영 상무
jlee79
@kr.kpmg.com

최근 IPO 심사 환경에서는 질적 요건의 높은 기준과 현실적인 비즈니스 계획,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빙이 요구됩니다. 유통, 소비재팀은 변화하는 규제와 산업의 트렌드에 대응하며, IPO 전 회계·공시의 점검 및 내부통제 정비 등 폭넓은 회계 자문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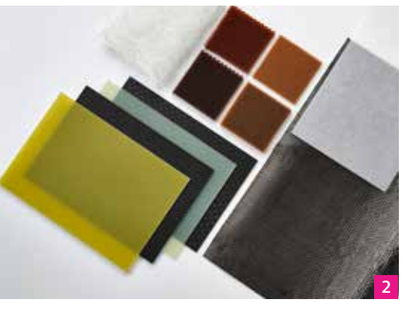
업계 유일! 산업별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IPO 지원센터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미래 산업 주도하는 복합소재 선도 기업

HANKUK CARBON

1


2

3

한국카본은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프리프레그를 상용화한 복합소재 기업으로, 탄소섬유와 유리섬유 등 다양한 소재를 첨단 산업에 공급하고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생산을 통해 혁신 복합소재의 국산화를 선도하며, 기초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아우르는 복합기능 솔루션으로 최적의 복합소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40년 이상의 연구개발로 이끄는 복합소재 혁신

1984년 설립된 한국카본은 40년 이상의 연구개발과 시장 개척을 통해 복합소재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온 기업이다. 독창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 프리프레그를 상용화하며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낚싯대용 탄소섬유 소재를 세계 시장에 공급하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LNG선 단열재로 영역을 확장, 특히 LNG 운반선의 핵심 기자재인 극저온(-163℃) 보냉 시스템을 국산화하며 세계 조선 3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아울러,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Mark-III 계열 단열재를 기반으로 세계 LNGC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현재는 'Link to a Lighter Future'라는 슬로건 아래, 스포츠·레저부터 항공우주까지 일상과 산업 전반에 특화된 경량·고기능 복합소재를 공급하며 미래 소재 기술의 방향성을 선도하고 있다.

극한 환경에 최적화된 소재로 모빌리티 및 LNG 단열재 기술 경쟁력 강화

한국카본은 탄소·유리섬유 기반 프리프레그, 유리섬유 페이퍼, LNG 단열재를 비롯한 핵심 복합소재를 생산하며, 모빌리티(자동차, 철도, 항공우주, 조선해양), 인더스트리얼(건축, 인프라, 전자, 모바일·디스플레이), 라이프스타일(스포츠·레저) 등 넓은 산업군에 고기능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복합소재는 경량화, 극저온 보냉, 열 차단, 전파 흡수·차폐, 친환경 기능 등 '복합기능'을 구현하며, 지상·해상·항공·우주 등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하다. 특히 무인기, 위성 등 첨단 항공우주 산업에서 요구되는 극한 환경 대응 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LNG 운반선 핵심 기자재 분야에서 축적한 보냉·단열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암모니아 등 차세대 친환경 연료 운반체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카본은 소재 사업을 기반으로 부품 사업까지 확장하며 글로벌 모빌리티 부품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JEC World, ADEX, InnoTrans 등 국내외 전시회에서 최신 복합소재와 부품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복합기능 솔루션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한국카본 복합기능 솔루션은 소재부터 부품 및 제품, 엔지니어링 및 솔루션, 평가 및 분석까지의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다. 기초 연구부터 프로토타입 제작·검증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자체 공정팀과 소재 연구소를 통해 응용 개발을 지원하는 등 기술적 통합으로 고객의 니즈를 한 번에 해결하는 역량을 지녔다. 특히 2023년 마곡산업단지에 설립된 R&D 복합공간 '한국카본 I&I Center'는 복합소재·부품 개발, 설계, 연구가 융합되는 거점으로, 첨단 산업용 제품의 상용화를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카본은 이를 바탕으로 4개의 계열사, 6개의 사업장, 10개의 공장, 2개의 R&D센터로 구성된 글로벌 네트워크로 국내외 시장에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유럽-아시아-북미를 연결하는 수주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8년 베트남 빈푹성에 생산기지를 설립하여 대량생산을 통한 글로벌 양산 체제를 본격화했으며, 3년 전 슬로바키아 소재 항공기 부품 제조사 c2i 인수에 이어 최근엔 미국 현지 진출로 대륙별 거점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는 공급망 블록화를 극복하고, 무인기 소재 분야의 미국 인증 절차를 효율화하며, 현지화된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객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ESG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가치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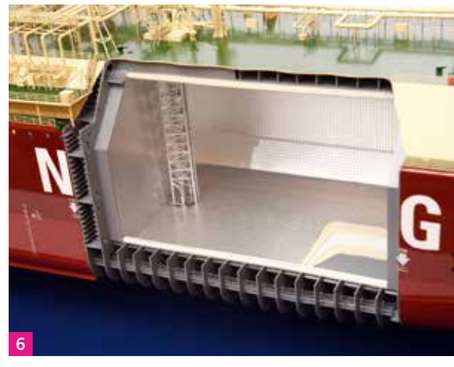
한국카본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전사적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 모델을 친환경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속적인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으로 2024년 6월까지 약 1,712MW의 전력을 자체 생산·소비하며 평균 6.94%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약 789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했다. 2024년 초 추가로 2개 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구축했으며, 2030년까지 약 6,500톤의 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소재 기술 개발을 통해 자원 순환과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3년 설립된 국내 최초 중간처우시설인 밀양희망센터를 통해 지난 12년간 약 200명의 중간처우자의 안정적 자립과 사회 적응을 지원해 왔다. 또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화학공학·생물공학 분야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기금 지원, 지역 하천 수질 개선과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관리·보전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4

1. 한국카본 I&I Center 전경. 한국카본은 마곡 내 R&D센터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서비스를 아우르는 복합기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2.** 한국카본의 다양한 복합소재 제품군 **3.** 한국카본 소재를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부품 **4.** 한국카본 밀양 본사 전경 **5.** 슬로바키아 소재 항공기 부품 제조사 c2i **6.** MARK-III LNG선 탱크 내부 단면도, 한국카본은 LNG 운반선의 핵심 기자재인 극저온(-163℃) 보냉 시스템을 국산화하며 세계 조선 3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5



6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AI 에이전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AI와 함께 일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AI 에이전트(AI Agent)'란 무엇이고, 왜 주목받고 있을까? 전문가를 통해 AI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와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Q 'AI 에이전트', 왜 지금 주목받고 있나요?

AI와 함께 일하는 기업의 미래가 열리며 'AI(인공지능) 에이전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인간이 제공하는 명령을 단순히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 자율적으로 상황과 문제를 판단하고, 인간과 주변 환경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유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 빠르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AI는 텍스트 위주의 단순한 챗봇 기능을 넘어, 이미지, 음성 등 시각 및 청각 데이터를 융합하여 멀티모달 기반의 정보 분석을 통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변화해 왔습니다. 멀티모달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AI가 인간과 같은 역할을 사회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일반지능) 시대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AI가 빠른 속도로 기능이 고도화되고 다양한 AI 서비스가 출시되며 확대 보급됨과 함께 AI 에이전트가 AI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빠른 기술 혁신과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기반으로 미래 사회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하는 자동화 기능을 넘어,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고 AI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황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AI 에이전트는 다양한 산업과 일상생활 영역에서 혁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에이전트 기술 발전 전망과 기업의 우려 요소

기술 발전 전망

- 자율적 판단 및 복합 상호작용 기반 문제 해결
- 생성형 AI 기반 자연스러운 대화 및 판단 능력 향상
- 멀티모달 정보 분석 및 판단 확대
- AGI(인공일반지능) 시대 진입 가능성

기업의 우려 요소

- AI가 스스로 결정하여 내리는 행동에 대한 책임 소재 불분명
- 데이터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
- 개인정보 침해 및 남용 우려 증가
- AI 영향력 증가에 따른 임직원의 고용불안 증대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기업의 AI 에이전트 활용 가치

Goal-Oriented Behavior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업무 계획 / 행동

Autonomous Execution
별도 인간의 개입 최소화, 독립적 판단 및 행동

Self-Improving
업무 결과 자가 학습, 지속적 성능 개선

Agent to Agent Collaboration
전문 역할을 가진 AI Agent 간의 협업, Human in the Loop

Q 'AI 에이전트'가 기업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AI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혁신을 도모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크 산업에서는 메타와 아마존이 종합형 AI 에이전트를 선보였고,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스마트홈 분야에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사용자 맞춤형 환경 제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제조 산업에서는 현대자동차가 AI 에이전트를 통해 차량 내 음성 비서 서비스를 구현했으며, 포스코는 AWS(아마존웹서비스)와 협력해 제조 현장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금융 산업에서는 주요 은행들이 'AI 뱅커'와 'AI 음성뱅킹', 'FCC 챗봇' 등으로 고객 상담과 내부 문서 처리 효율화에 나서고 있으며, 유통 산업에서도 월마트와 아마존이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통해 재고 관리와 고객 응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 기업이 주목해야 할 AI 에이전트 특징과 활용 방안은 무엇인가요?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AI 에이전트의 목표 기반의 행동(Goal-Oriented Behavior), 자동화된 실행(Autonomous Execution), 자가 개선(Self-Improving), 에이전트 간의 협력(Agent to Agent Collaboration)이라는 특징에 주목해야 합니다. AI 에이전트는 설정된 목표에 기반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과 행동을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닙니다. AI 에이전트가 가진 주요 특징과 운영 방식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토대로 적절한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기업 내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AI 에이전트는 높은 자율도를 기반으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독립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고지능적 시스템입니다.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AI 에이전트가 적절하게 관리 감독될 수 있는 기업 내 체계 마련도 필수적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며 역량이 개선되고, 타 AI 에이전트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 기업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빠른 AI 에이전트 활용 시스템의 도입은 AI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가치를 확대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AI 에이전트는 특히 자율성이라는 특징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AI 에이전트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에이전트의 구조를 설계할 필요성도 강조됩니다. AI 에이전트의 활용 목적에 맞는 적절한 에이전트 유형을 활용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설계 역량을 확보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 서비스를 만드는 것 또한 기업의 주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AI 에이전트를 통해 기업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은 자사의 업무 수행 방식에 맞는 AI 에이전트의 역할을 정의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AI 기술의 도입은 기업에게 RPA(로봇프로세스자동화), 로봇 등의 자동화 솔루션을 통한 인력 활용을 줄이는 '지원자'의 역할뿐 아니라, 자료의 정리, 조사, 분석 등의 결과를 자동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조언자'의 역할로 자리하였다는 점이 AI 에이전트가 만드는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AI 에이전트 도입의 키가 됩니다. 기업은 더 나아가, AI 에이전트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간 노동자와 함께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실행자'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구상해야 합니다.

* 이 칼럼은 10월 22일 자 한경 CFO Insight 'AI 에이전트가 바꾸는 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고를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AI센터 이준기 상무
Tel. 02-2112-0615
E-mail. jlee199@kr.kpmg.comw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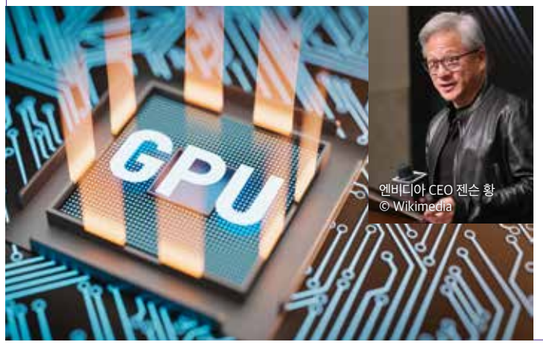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경제 용어 사전

최신 이슈와 신조어를 살펴보는 알쓸사전! 이번 호에서는 지난 10월 연일 화제를 모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에 남긴 'GPU'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취임 이후 나타난 새로운 경제 흐름을 뜻하는 '다카이치 트레이드'에 대해 알아본다.

젠슨 황이 준 선물
그래픽처리장치 (GPU)

최근 방한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앞으로 5년간 AI 개발의 핵심 장치인 그래픽처리장치(GPU, Graphics Processing Unit) 26만 장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하면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어요. GPU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그래픽 연산을 빠르게 처리해 결과를 모니터에 출력하는 연산 장치로, VPU(Visual Processing Unit)라고도 불립니다. CPU(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장치)와 GPU 모두 컴퓨터의 핵심 연산 장치이지만, 설계 철학과 처리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며 서로 다른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CPU가 소수의 강력한 코어로 복잡한 순차 연산을 수행한다면, GPU는 수천 개의 단순한 코어를 통해 대규모 연산을 동시에 병렬 처리하는 데 강점을 지닙니다.

원래 GPU는 게임 그래픽 처리 등 시각적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반도체였지만, AI 열풍이 불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할 수 있는 GPU의 능력이 재조명되었죠. 그 결과 GPU는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수 장치로 자리 잡았고, 전 세계 GPU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는 AI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뜨거운 테크 기업으로 떠올랐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
© Wikimedia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 Wikimedia

여자 아베의 등장! 일본 시장의 새 키워드
다카이치 트레이드 (Takaichi Trade)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의 취임 이후, 시장에서는 그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투자 흐름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를 두고 '다카이치 트레이드(Takaichi Trade)'라고 부르는데요, 2025년 일본 정치·경제 분야에서 주목받는 주요 현상 중 하나입니다. 다카이치 트레이드는 정책 방향을 고려한 투자 전략을 의미해요.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Abenomics)'를 계승하면서 '여자 아베'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어요.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대규모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이죠. 실제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정부와 일본은행(BOJ)이 2013년에 발표한 '디플레이션 극복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공동성명'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어요. 이는 아베노믹스의 근간이 된 정책으로, 다카이치 정부가 기존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요.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 부양을 지속할 전망으로, 그 결과 최근 외환시장에서 엔화 가치는 하락,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Happy Workplace
행복한 일터

삼정人라이프 20
2025년 삼정인의 가장 특별한 순간!

인재양성소 22
2025 GNPC
바르셀로나에서 개최!

마음온도+ 24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봉사단
'행복한 동행'

이동규의 두줄칼럼 26
최고의 스펙

心 Care 28
새해 운세를 보기 전에 :
내 불안을 누가 해석하는가?

Samjong News 30
머니투데이 주주친화대상-
2025 IR 대상에서 'IR파트너상' 수상 外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년 삼정인의 가장 특별한 순간!

어느새 2025년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 해 동안 삼정인의 마음에 남은 '특별한 순간'은 언제였을까? 소소하지만 웃음 짓게 했던 일상, 함께해서 더 뜻깊었던 팀워크의 순간, 혹은 오래 기억하고 싶은 개인의 성취까지! '삼정人라이프'는 연말 특집으로 삼정인들의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을 함께 나눠봤다.

시즌 끝! 2박 3일 제주도 여행!

김도연 Assosiate (B&F1)

올해 4월, 처음으로 시즌을 함께 마친 B&F1본부 동기들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단체 티셔츠와 현수막을 들고 산방산 유채꽃밭 앞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어느덧 모두 2년 차가 되어 다시 시즌을 앞두고 각자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이 사진을 보며 그때의 행복한 추억과 함께 동기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주도에서의 추억을 오래 간직하며, 사랑하는 동기들과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동기들과 1박 2일 강릉 여행

박원범 Associate (B&F2)

반기 검토가 끝난 후 본부 동기들과 함께 1박 2일로 강릉 여행을 갔던 순간입니다. 곤지암 연수 때 입었던 KPMG 티셔츠를 다시 입고 다니면서 조금은 민망했지만, 신입 회계사 시절의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깨끗한 동해바다에서 동기들과 함께 수영하고 뛰어놀던 그 장면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다른 신입 회계사님들도 연수 때 받았던 티셔츠를 입고 여행을 가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팀워크를 다지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데 정말 좋습니다!

팀원들과 함께한 뜻깊은 팀워크!

박재범 Manager (CM2)

BAT팀 인차지를 맡고 있는 박재범입니다. 우리 BAT팀은 작년 6월부터 한 팀이 되어 1년 넘게 끈끈한 팀워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막내 시절부터 함께한 고객사에서 이제 인차지로 팀을 이끄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어, 팀과의 모든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전국 출장이 많지만, 저희는 이를 '함께하는 특별한 추억'으로 삼았습니다. 여수 출장 후 해변 대관람차를 타고 바닷바람을 맞았고, 분당 출장 시에는 불곡산 등산으로 활력을 충전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팀과 함께 찾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랜 인연의 고객사에서 인차지로서 팀을 이끌며 느낀 개인적 성취와 팀원들과 함께한 뜻깊은 팀워크의 순간들은 제게 오래도록 기억될 경험입니다. 고생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힘이 되어준 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BAT팀이 함께할 순간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인생 첫 풀코스 마라톤!

김인환 S.Analyst (Deal Advisory4)

2025년을 시작하며 꾸준함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고자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봄에는 10km와 하프를 완주하며 자신감을 얻었고, 계속된 연습을 통해 체력과 페이스도 안정되었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11월 첫 풀코스에 나섰습니다. 후반부에는 체력이 바닥나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코스 곳곳의 응원이 큰 힘이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의 뭉클함과 성취감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도전은 꾸준함의 가치를 다시 느끼게 한 소중한 경험이었고, 앞으로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용기도 얻게 했습니다. 모두 올해도 고생많으셨고, 내년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아빠가 된 날

박현태 S.Senior (CM2)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들어도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그날 처음 딸을 품에 안는 순간,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손가락보다 작은 손, 가늘게 움켜쥔 주먹, 그리고 제 품 안에서 고요히 잠든 얼굴. 그 모든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신기했습니다. 바쁜 시즌의 한가운데였기에 며칠째 밤을 새워 일하던 터라 몸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머릿속이 맑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의 무게 중심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하루보다 '우리'의 하루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작은 생명이 제게 기대어 잠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그 무게는 결코 버거운 짐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고마운 선물입니다.

Senior 승진 기념 축하 파티 With 회장님!

이정훈 Senior (IM4)

지난 9월, IM4본부 3년 차 동기들의 Senior 승진을 기념하는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다른 일정이 있으셨던 회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직접 방문해 저희의 승진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회장님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 덕분에 축하 자리가 더욱 뜻깊었고, 회사 생활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난 순간!

박인용 S.Manager (OC)

여러 번의 시험관 수술을 통해 힘들고 어렵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얻었습니다. 행복한 날들을 보내며 기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산후조리원의 CCTV를 보다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녹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하품을 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웠던 순간입니다.

신입 회계사를 사진에 담은 순간!

윤형진 대리 (BD&Markets)

경력직으로 입사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 신입 회계사 입문 교육을 촬영했습니다. 저 역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카메라에 보이는 신입 회계사들의 모습에서 처음 삼정KPMG에 입사한 제 모습이 투영되어 카메라에 비춰졌고 같은 마음과 호흡으로 촬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장소 맞은편이 바위와 나무가 있어 위험했지만, 나름 사진 포인트를 잘 찾아 촬영했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삼정인으로서 소임을 다한 순간이었고, 신입 회계사들을 보며 포부와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그 경험이 자산으로 남는다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GNPC 바르셀로나에서 개최!

지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25 Global New Partners Conference(이하 '2025 GNPC')가 개최됐다. GNPC는 KPMG 멤버 펌의 신임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이며, 삼정KPMG FY25 신임 파트너들도 현장에 참석해 전 세계 KPMG 신임 파트너들과 네트워킹하며 향후 비전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협업의 폭을 넓혀 KPMG 성장 가속화에 기여할 것!

오진호 상무 (B&F1)

전 세계 600여 명의 신임 파트너들과 함께한 2025 GNPC는 글로벌 KPMG 멤버라는 소속감을 깊이 느끼게 해준 행사였습니다. 동시에 파트너로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금 마음을 다지게 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 교육 세션 중에서도, 8명의 신임 파트너들과 함께 강연자의 질문을 바탕으로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언젠가 꼭 함께 일할 기회를 만들자고 다짐했던 'Leading with a Global Mindset' 세션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업의 정의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정된 시장이나 부서 단위의 협업을 넘어 국가와 지역 간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협업을 바라보는 제 시야와 사고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빌 토마스 회장님이 강조한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빌 회장님은 첫 공식 교육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늘 이 질문을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KPMG의 성장 가속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KPMG인의 자부심을 갖고, 플러스 만들어 가는 파트너로!

이동철 상무 (Deal Advisory4)

GNPC 덕분에 바르셀로나에 처음 가게 됐는데, 볼거리도 많고 매우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GNPC 교육이 진행된 3일간 빌 토마스 회장을 비롯하여 현장의 시니어 파트너들이 "신임 파트너들이 우리의 미래이고, KPMG이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세심하게 챙겨 주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날 'Welcome to Barcelona' 프로그램에서는 전 세계 600여 명의 신임 파트너들과 팀을 꾸려, 바르셀로나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파트너들과 도시를 탐방하며,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본인을 소개할 때, 각자 맡은 업무를 중심으로 소개하는 모습을 보며 각자가 KPMG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는 프라이드가 느껴졌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 역시 삼정KPMG에서 '플러스(+)'를 만드는 파트너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 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팀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KPMG의 위상을 느끼고 리더로서의 소통의 진리를 깨닫다

조원빈 상무 (Tax4)

GNPC는 150여 개국의 새로운 리더십이 모이는 자리로, 개인적으로는 베이징 파견 근무 이후 글로벌 멤버 펌 구성원들과 관계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Welcome Dinner 장소에 들어선 순간, KPMG라는 조직의 위상과 전 세계 신임 파트너들이 모인 기운을 직접 체감할 수 있었고, 현장에서 들은 빌 토마스 회장님의 조언과 격려는 앞으로 파트너로서 성장하는 데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 느꼈습니다. 각국의 신임 파트너들은 문화와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 친근했고, 저 역시 공통점을 찾은 영국인 파트너와 진한 허그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접점을 넓히고 밀착 소통하는 것이 세계 어디서든 통하는 소통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세션 외 시간에는 가족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둘러보며, 가우디 설계 아래 100년 넘게 한 층씩 완성되어 가는 모습에서 KPMG가 걸어온 역사와 앞으로의 방향을 떠올렸습니다. 저 역시 매일의 경험을 하나씩 쌓아가며 KPMG에서 중요한 인재로 성장하겠습니다.

국경을 넘어 통하는 KPMG의 가치, 새로운 기회와 혁신으로!

김문섭 상무 (Digital)

GNPC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목표인지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산업에서 활동하는 파트너들의 경험을 들으며 KPMG 네트워크가 지닌 폭넓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역시 글로벌 파트너가 갖춰야 할 덕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각국에서 온 신임 파트너들과 교류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KPMG의 핵심 가치와 전문성은 국경을 넘어 통하는 공통의 언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국가의 파트너들이 보여준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쌓아온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항상 배우고 협력하려는 태도에서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 역시 KPMG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국가와 산업의 경계를 넘어 협업하며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열린 소통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동료와 고객 모두에게 신뢰받는 리더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사랑나눔봉사단을 소개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멘토링 봉사단 '행복한 동행'

삼정KPMG는 '사랑나눔봉사단'을 운영하며,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봉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과 문화재 보호를 비롯해 아동 멘토링 등 총 8개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학교생활 및 일상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복한 동행' 봉사단을 만나봤다.

우리 함께 '행복한 동행',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력 올려줘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많은 외국인 유학생의 목표는 한국 기업에 취업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다.

'행복한 동행'은 유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봉사단이다. 이에 한국어 수업과 한국 문화 소개 등 외국인 유학생과 임직원 간의 교류를 통해 언어 교환은 물론 취업 관련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한국의 주요 명소를 방문하고 식사를 나누며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우리 사회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성장 도울 때 보람 느껴

손정훈 대리 봉사활동에 관심은 있었지만, 어떤 봉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자율 봉사활동을 조직한다는 소식을 듣고 '행복한 동행'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매체에서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역대 최고치라고 하지만, 사실 크게 실감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봉사단 활동을 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외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지내고 있고, 단순 관광이 아니라 학업과 직장 등으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지수 S.Manager 맞아요! 저도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실제로 대학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원이 있는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처음 실감했어요.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됐고, 앞으로는 외국인들과 함께 살아갈 사회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더 많은 의미를 두게 됐어요.

본사 오피스 투어부터, 야유회까지 다채로운 활동 전개

손정훈 대리 지난 6월에는 삼정KPMG 본사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해 기업 탐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취업 컨설팅 전문 강사님을 모셔 특강도 열었는데, 풍부한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어요. 또한 외국인 학생들도 강의를 정말 진지하게 듣고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동행 활동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적응과 취업 준비에 실제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느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윤지수 S.Manager 본사 오피스 투어 외에도 우리나라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김밥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 적이 있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서울대공원으로 야유회를 떠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다만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과는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봉사활동에서 더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 영어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국가 유학생들 만나며 폭넓은 활동 전개할 것!

윤지수 S.Manager 입사 후 참여했던 사랑나눔 봉사활동에서 다른 본부 구성원들과 함께하며 쌓은 경험이 기쁘고 보람된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인지 임직원 봉사단 '행복한 동행'이 만들어진 초반부터 지금까지 즐겁게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봉사단이 생긴 지 2~3년이 지나며 각 봉사팀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삼정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봉사팀에 참여해 업무 외의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손정훈 대리 봉사활동은 혼자 시작하기에 쉽지 않은데, 회사에서 팀을 통해 함께 하니 훨씬 접근하기 편했고 같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마음도 더 편했습니다. 꼭 '행복한 동행'이 아니더라도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기회를 통해 꼭 참여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행복한 동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을 만나기 위해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더 폭넓은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동행' 봉사단과 함께해요!

'행복한 동행'은 글로벌 시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나누는 봉사단입니다. 외국인 학생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을 만날 수 있도록 활동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정환 전무 junghwankim@kr.kpmg.com / 010-3787-6068
윤지수 S.Manager jyun@kr.kpmg.com / 010-3705-3647
손정훈 대리 junghunson@kr.kpmg.com / 010-5618-1524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최고의 스펙

요즘엔 너도나도 스펙, 스펙 하지만 사람은 절대 무슨 통조림 같은 공산품이 아니다. "스펙 좋으면 일도 잘한다"라는 통설은 이미 깨진 지 오래다. 요즘 젊은이들이 신봉하는 MBTI도 아침저녁으로 달라지는 일도 적지 않다. 그동안 동서양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인간의 천성(天性)은 안 변하지만, 태도와 취향은 바뀐다는 거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사람을 사회적 조건과 자격 같은 형식으로 분류하고 대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은 내팽개쳐져 왔다. 따지고 보면 사람에게 스펙 운운하는 건 일종의 인격 모독이다. '아프니까 청춘'은 더욱 아니며 아프면 환자일 뿐이다.

기업경영의 Rule No.1

경영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채용(staffing)과 면접은 동전의 양면이다. 우선 신입사원들에겐 피 말리는 면접의 법칙 제1조는 '잘난 모습' 보다 '바른 인성'이 먼저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의 면접 현장에서 나온 최빈출 단어도 '인성(人性)'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선 말로는 '톡톡 튀는 인재'를 뽑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무던하고 사고 안 칠 것 같은 사람'을 원하는 증거라는 예리한 비판도 있다.

면접생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3045 법칙'이란 것도 있다. 이는 답변 시간은 30초를 넘기지 않고 1분 자기소개는 45초만 쓴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명한 〈메라비언의 법칙(The law of Mehrabian)〉이 있는데, 이것은 타인이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파악하기에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이론이다. 과거 미국의 심리학자, 앨버트 메라비언은 그의 저서 『Silent Message』에서 사람들은 상호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 정보인 말은 단지 7%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언어적인 요소가 93%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시각 정보(바디랭귀지) 55%, 청각 정보(목소리) 38%라는 것이다.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은 일단 모습(외모)이 중요하지만, 사실상 대답하는 내용보다 청각, 즉 보이스 및 말투가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이다. 요컨대, 조직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말보다 말투, 처세보다 처신이라는 거다.

바야흐로 시대는 중후장대, 경박단소를 넘어 '온후지정(溫厚之情)' 시대를 맞고 있다. 현재 공무원 시험 인기는 바닥으로 추락한 가운데 주요 기업들은 이미 신 채용 문화를 도입했다. "거추장스러운 스펙은 가라, 우리는 우리 식의 인재를 원한다"라고 외치고 있다. 세계적인 '스펙 다이어트' 트렌드에 발맞추어 국내 대기업들도 필수 제출 서류에서 학위 제외, 적성검사 폐지 등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참고로 HR 전문가가 말하는 인재 채용에 중요한 진짜 〈SPEC〉은 다음과 같다.

*S: Social *P: Physical
*E: Emotional *C: Cognitive

최고의 스펙은 인성이다

한편 학교, 사무실, 지하철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성 파탄의 현장을 보라. 이는 우선 '인성보다 성공'을 외쳐온 부모와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외모 지상과 물질 숭배로 뒤범벅된 이 천박한 풍토에서 바른 인성을 기대하기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것이다. 요즘은 그나마 '학벌보다 인성'이라는 외침이 조금씩 커지고 있음은 다행히 아닐 수 없다.

무릇 바탕(質)이 좋아야 단계(品)를 거쳐 모양(格)이 나오는 법이다. 성(性)이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소재다. 성에서 바탕이 성질(性質)이고, 이를 닦아야 성품(性品)이 길러진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인격(人格)이 바로 설 수 있다. 원래 사람이란 커다란 시련을 당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참다운 인간이 되긴 거의 불가능하다. 대나무의 마디같이 혹독한 시련과 아픔의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김칫독을 땅에 묻는 일이나 그 뜨거운 대장간의 쇠 담금질도 같은 이치다. 궁극적으로 어떤 자리나 모임이건 인격적 충전 없이 앞자리에 나가려 하는 건, 마치 발끝으로 오래 서 있으려는 것과 같다. 특히 향후 인류가 AI·로봇과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감사, 배려, 공감 등 바른 인성은 인간에게 절대적 비교우위를 부여해 줄 것이다.

"위대함은 지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위대함은 인격에서 나옵니다." 2024년 3월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행해진 연설에서 NVIDIA CEO, 젠슨 황이 강조한 말이다.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칼럼니스트
베스트셀러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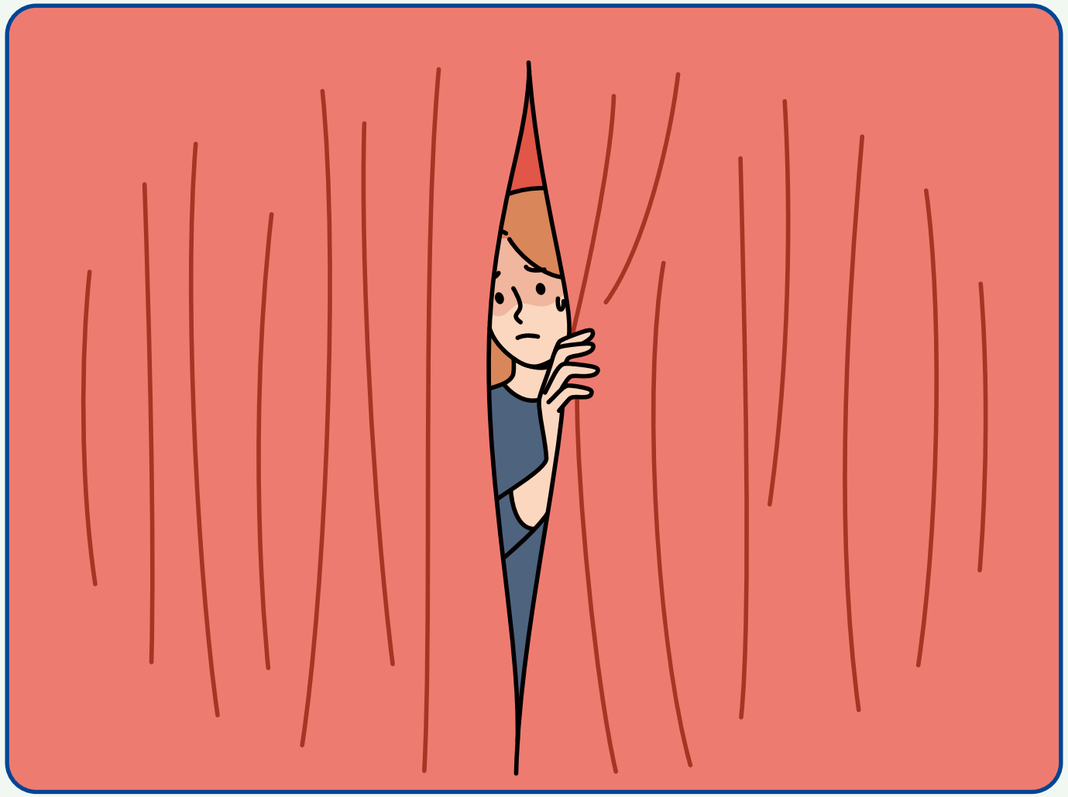
국내 저명한 칼럼니스트(조선일보, 국제 PEN클럽 정회원)이자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다. 기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및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근본원리를 비롯하여 경영 각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언어의 쇼츠 형식으로 풀어낸 독창적인 초미니칼럼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AI 시대 인간만의 생각 품질을 높이고 영감을 주는 지적 아포리즘 결정체다.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새해 운세를 보기 전에 : 내 불안을 누가 해석하는가?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우리는 어떻게 불안을 다루고 있을까? 최근에는 전화 사주풀이, 타로 카드 앱, ChatGPT를 통한 사주 보기 등 다양한 방식에 의존해 미래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과연 불안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걸까? 이번 호에서는 심리 상담가의 시선으로 '불안'에 대해 살펴본다.



Profile

설진미

삼정KPMG 전임 심리상담사

성균관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고려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으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임상심리실에서 슈퍼바이저로 경력을 쌓았다. 현재는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10년간 일하며 심리상담, 조직컨설팅, 강좌 및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조직에 속한 직장인들을 만나 삶의 불안과 고통, 갈등을 성찰하고 성장을 모색해 왔으며, 조직문화를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2025년은 유난히 불확실성이 높았던 해다. 기술의 규칙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경제와 일자리의 전망은 안개 속을 걷듯 흐릿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느낀 불안은 결코 이상한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는 생생한 증거다. 심리학자 롤로 메이(Rollo May)는 불안을 "실존과 마주할 때 느끼는 현기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올해의 불안은 우리가 불확실한 현실을 정직하게 마주했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올 한 해 "나는 이 불안을 납득할 만한 '나만의 해석 체계'를 만들었는가?" 생활변화관측소 박현영 소장의 분석처럼, 올해 직장인들은 예년보다 훨씬 더 '안정'을 갈망했다. 싱잉볼, 반려 돌멩이, 타로, 운세, 종교적 메시지가 유행했고, 특히 타로 카드나 점집이 성황을 이뤘다. 그런 곳에서 듣는 말들이 있다. "올해 삼재라서 그래.", "곧 상황이 열릴 거야!", "이건 네 업보야. 견디면 지나간다."

이런 문장들은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빠르게 설명해 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불안, 고통의 열기를 눈앞에서 즉시 식혀주는, 강력한 '즉효 진통제'다. 그 순간 우리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라는 안도감을 얻는다. 그런데 그 해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내 삶 위에 덧씌운 설명일 뿐이다. 여기서 물어야 한다. 그 위안은 "내가 납득한 것인가, 남이 대신 납득해준 것인가?" 타인의 말에 기대는 순간, 우리는 삶의 방향키를 천천히 외부로 넘기게 된다. 올해처럼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그 의존이 더 깊어진다. 점집을 찾고, 권위적 대상의 답을 기다리며, "내가 맞게 가고 있는가?"라는 판단을 스스로 내려보지 못하게 된다.

실존적 성장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납득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다. 나만의 해석 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긍정이나 자기암시가 아니다. 내가 경험한 불안을 구체적인 언어로 분석하는 과정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 *나는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
- *AI, 경제, 조직 변화 중 무엇이 나를 가장 흔들었는가?*
- *그 불안은 내 전문성, 내 역할, 내 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
- *내 존재 가치를 오직 '회사인', '능력, 쓸모' 에서만 찾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

이 질문들은 불편하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통과해야만 막막했던 감정은 구체적인 문제로, 막연한 공포는 내가 다룰 수 있는 정보로 변한다. 그 순간, 불안은 더 이상 정체 모를 해일이 아니다. 내가 다룰 수 있는 파도, 즉 '관리 가능한 변수'가 된다.

2025년의 불안은 결코 우리가 약해서 생긴 감정이 아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거센 시대 속에서 묵묵히 살아낸 결과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나는 올해의 불안을 이겨내기만 했는가, 아니면 불안을 납득하고 이해할 나만의 해석 체계를 새로이 만들었는가?", "내 고통을 내가 해석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해석해 주기를 기다렸는가?"

내 불안의 이름을 내가 붙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것이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부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 참고: 2025년 이승욱 정신분석가의 [정신분석적 꿈분석 워크숍]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SAMJONG · NEWS

‘머니투데이 주주친화대상-2025 IR 대상’에서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IR파트너상’ 수상!

•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삼정KPMG가 지난 11월 12일에 열린 ‘머니투데이 주주친화대상-2025 IR 대상’에서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IR파트너상’을 수상했다. 삼정KPMG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시 자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5월 밸류업지원센터를 출범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공식 중견·중소 컨설팅 자문사로 선정돼 올해까지 99개 기업의 공시 업무를 지원했다. 이 중 ‘2025년 밸류업 백서’ 공시 모범사례가 나타나는 등 컨설팅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정KPMG의 밸류업지원센터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자문업무를 수행한 주요 코스피 기업의 주가는 공시일 이후 최근까지 평균 20% 이상 상승한 바 있다.

설하영 상무, ‘중견기업인의 날’ 산업부 장관상 수상

12월 1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1회 중견기업인의 날’에서 설하영 상무가 중견기업 지원 유공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설하영 상무를 비롯한 삼정KPMG의 중견기업 성장 지원 활동이 조직 고도화, 경영 안정성 제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정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식 인정한 유공 포상으로, 삼정KPMG의 중견기업 지원 활동이 공공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제도적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하영 상무는 “이번 표창은 삼정KPMG 중견기업성장지원센터가 축적해 온 전문성과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와 신규 협력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삼정KPMG-패스웨이파트너스, ‘바이오 헬스케어 재무 역량 강화’ 업무협약 체결

삼정KPMG는 지난 11월 14일 서울 강남구 삼정KPMG 본사에서 패스웨이파트너스와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의 재무 고도화 및 기업 가치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술 중심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활발한 투자와 M&A(인수·합병)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신약 개발 포트폴리오 등 비재무적 요소의 평가가 어렵다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가치평가 및 실사 과정에서 산업의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삼정KPMG의 가치평가 및 실사 업무 수행 시 패스웨이파트너스의 전문 인력 참여를 통한 산업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또 패스웨이파트너스가 발굴한 포트폴리오 기업에 대한 삼정KPMG의 인수·매각 자문 등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ASPAC DA Leadership Meeting 개최’ Global & ASPAC 지역 리더들과 고객 성장을 위한 협업 방안 모색

지난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Global 및 ASPAC 지역의 Deal Advisory(DA), Private Equity(PE), Strategy 리더들이 한국을 방문해 현 시장을 점검하고, 고객 성장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첫날에는 Global PE Steering Committee Meeting을 통해 글로벌 PE 시장 전망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추진 분야를 논의했다. 이어 열린 ASPAC PE Meeting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PE 시장 변화, 주요 딜 흐름, 국가별 협업 방안 등에 대해 공유했다. 둘째 날에는 ASPAC PE Meeting이 이어지며 전날 논의된 의제에 대한 심화 토론이 진행됐다. 이후 Joint DA & PE Meeting에서는 Deal Advisory와 Private Equity 리더들이 함께 모여 통합 서비스 전략, 크로스보더 딜에 관한 대응과 고객 가치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했다. 셋째 날에는 ASPAC DA Leadership Meeting을 통해 지역 리더들과 최신 Deal 시장 동향, DA 서비스 전략, 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Korea Strategy Activation 세션에서는 Global 및 ASPAC 리더들이 함께 한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실행 전략을 함께 검토하며 글로벌 협업을 통해 실행력 강화 방향을 모색했다.

한편, 이번 전략 회의를 통해 글로벌·ASPAC 리더들은 PE 및 DA 비즈니스의 미래 방향성을 공유하고, 지역 간 협업 강화 및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삼정KPMG는 앞으로도 Global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IPO, 사례 중심의 성공 전략’ 세미나 개최

11월 26일,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제10회 IPO, 사례중심의 성공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IPO를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투자유치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36개사에서 22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삼정KPMG와 한국거래소, 이성기술전략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실무형 콘텐츠를 제공했다. 최신 IPO 시장 동향과 향후 IPO 시장 전망을 살펴보고, 최근 발표된 IPO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아울러 지정감사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회계 및 감사 이슈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IPO 추진 기업의 단계별 투자유치 전략과 기술특례상장 성공을 위한 기술평가 대응 전략 등 관련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한편 삼정KPMG는 올해 IPO 지원센터를 출범해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설립 초기 단계부터 중소·중견기업, 상장예비기업으로의 성장 과정까지 지원하고, 상장 이후에는 코스닥 및 유가증권시장 안착을 돕고 있다. * Contact: IPO 지원센터 강인혜 전무 ikang@kr.kpmg.com

‘제약바이오산업 회계·세무 이슈’ 주제로 강연 진행

삼정KPMG가 지난 11월 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제약바이오 회계·세무 이슈’를 주제로 강연했다. 세미나는 제약바이오산업계의 회계 투명성과 세무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삼정KPMG 박상훈 상무와 김수연 이사는 ‘최근 회계 및 재무결산 동향’을 주제로, 조용호 상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재무결산’을 주제로 AI를 활용한 결산 자동화와 재무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소개했다. 최은영 상무와 정필광 상무는 ‘제약바이오업계 세무조사 트렌드·시사점’을 주제로 최근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세무조사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 Contact: IM1본부 박상훈 상무 sanghoonpark@kr.kpmg.com

‘경북·경남 지역 자동차 산업 세미나’ 개최

삼정KPMG가 11월 27일~28일, 양일간 대구무역회관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경북·경남 지역 자동차 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북·경남 지역의 자동차 부품 및 일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변화하는 기업 경영환경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회계·세무 및 산업 전문가들이 주요 현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IFRS 18 기준서의 핵심 변경 내용과 사전 준비 과정을 소개했고, ‘개정세법(안) 주요 내용 및 예규·판례’ 발표를 통해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제 개편의 핵심 포인트를 살펴봤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이외에도 ‘AI 시대의 재무결산 활용’을 주제로, 생성형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재무결산 사례와 실무 적용 방안을 공유했다. * Contact: IM3본부 강희석 상무 heeseokkang@kr.kpmg.com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5 제4차 WCD·KPMG ESG 연구회, ‘SPACE X와 뉴스페이스’ 주제로 열려

삼정KPMG와 세계여성이사협회(WCD Korea)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2025년 제4차 ESG 연구회’가 지난 11월 3일 삼정KPMG 본사 비전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구회는 ‘SPACE X와 뉴스페이스-기술이 정책을 바꾸다’를 주제로, 항공우주 분야와 한국형 뉴 스페이스 정책의 현주소 및 향후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기획본부 황진영 박사가 ‘스페이스X 이후 한국형 뉴스페이스 정책의 현주소와 과제’를 설명했고,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사업부 이준원 전무가 ‘한국형 우주산업에서의 기업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한편 WCD-KPMG ESG 연구회는 삼정KPMG ESG 전문가들이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 지식과 분석을 제공하며, 주요 기업의 이사로 활동하는 WCD 회원들의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서 ‘AI 시대 해외진출 위한 핀테크 기업 전략’ 살펴봐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행사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Korea Fintech Week) 2025’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 aT 센터 (양재)에서 개최됐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핀테크×AI, 금융에 취향을 더하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해외 유수 핀테크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며 글로벌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현장에서는 국가별 특색 있는 금융기술과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전시가 마련됐고,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세미나도 다채롭게 진행됐다. 삼정KPMG는 행사 둘째 날 ‘AI 시대, 해외진출을 위한 핀테크 기업의 Next 전략은?’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삼정KPMG는 글로벌 핀테크 동향에 대한 발표를, K-Fintech 30에 선정된 해빗팩토리와 어피닛에서는 해외 진출 노하우를, 글로벌 기술 기업 데이터브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자사의 AI 신기술을 소개했다. 세미나는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민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해 성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Contact: Digital 김세호 전무 seihokim@kr.kpmg.com / 김문섭 상무 moonsupkim@kr.kpmg.com

‘매경 ESG클럽 세미나’에서 ESG 인사이트 전해

*사진 출처: 매일경제

삼정KPMG ESG 전문가들이 11월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매경 ESG클럽 세미나’에서 ESG 관련 인사이트를 전했다. 매경 ESG클럽은 2021년 발족된 이후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경영 정착을 위한 교육과 네트워크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지속가능성공시기준위원회(ISSB) 위원을 지낸 백태영 삼정KPMG 자문위원이 글로벌 ESG 공시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어 문상원 상무가 ‘ESG 경영 개선을 통한 기업의 EBITDA 제고 방안’을, 한대근 상무가 ‘기후 시나리오 및 재무영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Contact: ESG비즈니스그룹 문상원 상무 sangwonmoon@kr.kpmg.com/ ESG CoE 한대근 상무 dhan2@kr.kpmg.com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MS-KPMG AI Business Solution Day 2025’ 개최

삼정KPMG는 지난 11월 13일 MS Korea와 함께 ‘MS-KPMG AI Business Solution Day 2025’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MS의 AI 혁신 전략과 Microsoft Copilot을 활용한 기업의 성장 전략 및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했으며, 삼정KPMG의 Copilot 기반 AI 혁신 전략, 변화관리 방향, 그리고 AI Agent 구현 사례를 바탕으로 ERP 등 기업 업무 시스템과 연계한 AI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현장에는 삼성, LG, KT, LS, DL 등 35개사 5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Copilot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사례가 기술·업무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돼 실무적인 도움을 받았으며, 다양한 적용사례와 기업의 AI 혁신 여정에 대한 단계별 접근법에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Contact: AI센터 이준기 상무 jlee199@kr.kpmg.com

삼정KPMG·서울대 경영대학, ‘AI 기반 경영사례 분석대회’ 성황리 마무리

삼정KPMG는 지난 11월 6~7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과 공동으로 주관한 ‘서울대 경영대학-삼정KPMG 경영사례 분석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올해 대회의 주제는 ‘AI(인공지능) 기반의 경영 혁신’으로, 서울대 재학생 3인 1팀으로 구성된 총 26개 팀, 78명의 학생이 참가해 1박 2일 동안 실제 기업 사례를 분석하고 전략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예선은 지난 10월 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유병준 교수와 임재현 교수가 심사를 맡아 6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은 지난 6~7일 서울대 경영대학에서 열렸고, 유병준·임재현 교수와 함께 삼정KPMG 이준기·문상원 상무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대회 우승은 서울대 김현명(경영학 4학년), 정주빈(경영학 3학년), 정창하(경영학 3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폐기되지 않는 패기팀’이 차지했다. 이 팀은 일상 속 자연스럽게 녹아 드는 앰비언트 AI(Ambient AI) 디바이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다다다담’팀(장서연·신지민·이형주)은 AI와 AR을 활용한 매출 확대 전략으로 준우승을, ‘TriVision’팀(홍채연·정현정·김태윤)은 AI-Chip 생태계에 기반한 비즈니스 전환 전략을 선보여 3등을 수상했다. 한편, 우승팀에게는 2026년 해외에서 열리는 HSBC 비즈니스 사례 분석대회(HSBC Business Case Competition)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일상의 AI 근육을 강화하는 1주 1미션 챌린지 — Part ❶

8주간 진행되는 ‘AI Run & Learn 챌린지 이벤트’!

삼정KPMG는 AI(인공지능) 챌린지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임직원들의 AI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주간 진행되는 ‘AI Run & Learn 챌린지 이벤트’는 미션 기반의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임직원들이 매주 다양한 주제로 AI를 일상과 업무에 활용해 보며 자연스럽게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미션을 달성할 때마다 법인 내 파란행복 커피 쿠폰이 제공되며, 8주 완주자에게는 이벤트 기념 굿즈를 선물한다.

1주 차 미션 — AI 활용해 나 소개하기

11월 3일부터 시작된 1주 차 주제는 ‘AI를 활용해 나 소개하기’로, ChatGPT, Character.ai 등 생성형 AI 툴을 활용해 이미지, 캐릭터, 영상, 텍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AI 버전의 나’를 제작해 공유했다. 총 652명이 참여해, 각자의 개성과 비전 등을 담아 본인을 표현했다.

2주 차 미션 — 일상 속 AI 루틴 만들기 11월 10일에는 2주 차 미션이 시작됐다. ‘일상 속 AI 루틴 만들기’를 주제로, 매일 아침 출근 전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 AI를 활용해 더 스마트하고, 재미있게 하루를 준비하는 루틴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575명의 참가자들이 날씨, 패션, 외국어 학습부터 뉴스 업데이트까지 일상과 업무에서 다양하게 AI를 활용한 루틴을 공유했다.

3주 차 미션 — 포토 비디오 만들기 11월 17일에는 3주 차 ‘AI 포토 비디오 만들기’ 미션이 진행됐다. 하루 일상, 특별한 순간이 담긴 사진을 AI를 활용한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봤다. 총 487명이 참가했으며, 사진에 AI를 활용해 고양이, 헬기 등의 그래픽을 합성하거나, 사진 속 자녀가 하늘에 날아올라 멋진 태양과 하나의 빛이 되는 영상 등으로 구현했다.

4주 차 미션 — 나만의 프롬프트 만들기 11월 21일부터 진행된 4주 차 미션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삼정인만의 프롬프트를 만들어봤다. Role, Context, Action, Format이 포함된 업무 관련 프롬프트 1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415명의 삼정인들이 자신만의 업무 효율화 및 노하우를 담은 프롬프트를 공유했다.

이번 AI 챌린지에 참가한 삼정인들은 “교육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일상에서의 AI 활용 경험이 자연스럽게 실무로 이어졌다”, “이벤트를 계기로 다양한 AI 툴을 직접 설치하고 사용해 보게 됐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한편, **5주 차**는 **‘나만의 AI Agent 셋팅하기’**, **6주 차**는 **‘비즈니스 외국인 롤플레잉’**, **7주 차**는 **‘AI와 대화로 찾는 나의 리더십’**, 그리고 **8주 차**는 **‘AI와 함께하는 나의 미래 시나리오’**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임직원들의 AI 활용이 일상과 업무 전반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www.kpmgacadem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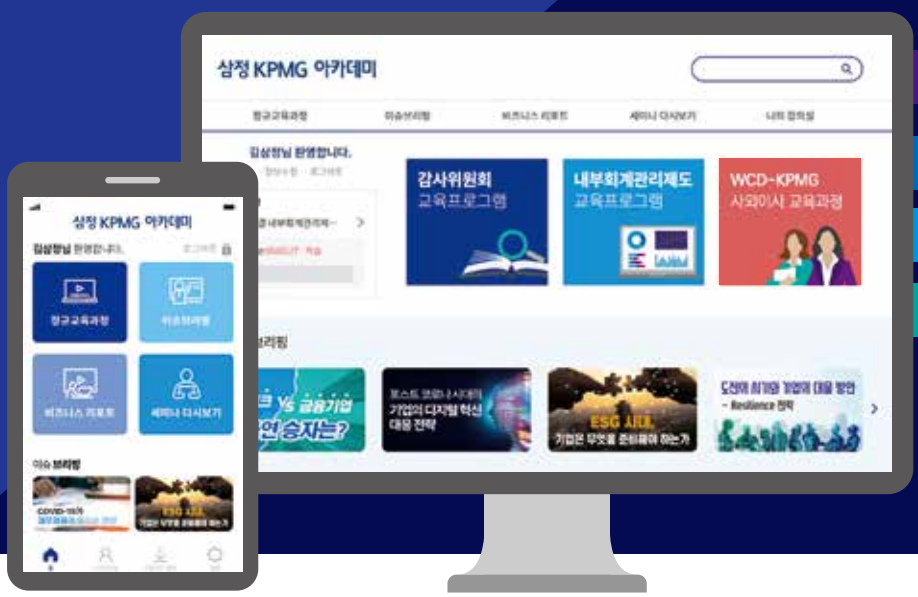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